

장성 필암서원서 500년 전 ‘과거시험’ 부활

청백리와 선비의 도시 장성군이 조선시대 과거시험을 재현하기로 해 이복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장성군에 따르면 선비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 중인 ‘K-선비문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6년 문물여장성 과거시험 재현행사’를 연다.

장성이 배출한 문신 허서 김인후 선생(1510~1560)의 문과 급제와 호남 유일의 문묘 배향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

사는 보조사업가관인 (사) 필암서원산악회가 주관한다.

시험 참가자들은 개천절인 10월 3일 하루 동안 강독, 한시, 책문 3개 분야 가운데 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하게 된다.

먼저 강독은 사서삼경의 한 대목을 고사장에서 3~4분간 암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시는 허서 김인후 선생이 배향된 ‘세계유산 필암서원’을 시제로 칠언을 시를 지

10월 3일 재현행사 마련...8월 1일~9월 15일 접수 강독·한시·책문 3개 부문...K-선비문화 우수성 홍보

접 지어서 제출한다. 강독과 한시는 유림과 한시 동호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책문은 조선시대 대과 시험 중 최종 단계로, 임금 앞에서 시험 보는 것을 뜻한다.

오늘날로 치면 논술시험에 해당되며 참가 자격은 전남광주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이다.

장성군은 과거시험 일주일 뒤인 10월 10일 장원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 등

총 18명의 성적우수자를 선발해 시상하고, 축하행사와 학술대회 등을 열 계획이다.

김재수 필암서원산악회 이사장은 “1996년부터 전국 한시백일장과 한글백일장을 개최해 오던 중, 전통을 살린 옛 과거시험 형태로 변신을 도모하지는 다수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전남광주권 유림과 학생, 동호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필암서원산악회는 오는 23일 필암서원 집성관에서 사전설명회를 갖고 9월 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자치내 문화원과 학교, 서원, 사우를 비롯해 각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과거시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필암서원산악회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성=이항범 기자 hnb6689@gwangnam.co.kr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농업인상담소가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밀착형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하며 지역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은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현장 지도 모습. 사진제공=함평군청

함평 농업인상담소, 현장밀착형 소통 창구 ‘자리매김’

5월까지 3230건 상담...지난해 동기 대비 3.3% 증가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농업인상담소가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밀착형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하며 지역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7일 군에 따르면 농업인상담소가 올해 5월까지 진행한 상담 건수는 총 323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진행한 3127건

대비 3.3% (103건) 증가한 수치다.

농업인상담소는 병해충 방제와 작물 재배 기술, 농업 경영 등 현장 방문 밀착 컨설팅을 통해 농업인들의 궁금증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는 △1월 712건 △2월 598건 △3월 659건 △4월 690건 △5월 571

건의 상담을 이어가며 영농 시기에 맞춤형 상담 활동을 진행했다.

함평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상담 증가의 원인으로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전문성 있는 상담’과 ‘지속적인 신뢰 구축’을 꼽았다.

현재 농업인상담소는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 농촌지도사 3명이 전담 운영 중이다.

농업 관련 전문 상담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순분·학교·해보면)를 방문하면 언제든지 도움받을 수 있다.

문정모 함평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상담 횟수의 증가는 농업인상담소가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든든한 동반자로 신뢰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결과”라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상담사들을 통해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체계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일진 기자 6263739@gwangnam.co.kr

나주천연염색문화재단 ‘전남 공예페스타’ 개최

19~21일 전남공예창작지원센터...다양한 체험프로 마련

나주에서 전통과 창작, 체험과 전시가 어우러진 ‘2026 전남 공예페스타’가 개최된다.

17일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에 따르면 19~21일 전남공예창작지원센터(한국천연염색박물관)에서 ‘2026 전남 공예페스타’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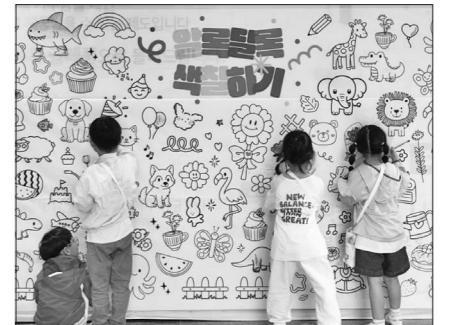
지난 2023년부터 이어져 온 이번 행사는 일상에서 잊혀 가는 손의 가치와 공예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지역 공예 문화의 저변 확대와 대중화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전남 곳곳에서 활동하는 공예작가들과 함께 다채로운 체험과 전시,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축제 첫날인 19일에는 목공예와 천연염색을 중심으로 한 심화 공예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단순한 체험을 넘어 작가의 철학과 제작 과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몰입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일과 21일에는 쪽 염색을 비롯해 목공, 유리, 가죽공예 등 다양한 공예 클래스를 통해 관람객들이 공예의 즐거움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전남 공예 작가들이 참여하는 연대 전시도 눈길을 끈다. 제작 과정에서 사용된



다양한 도구와 작업 영상을 함께 전시해 공예품에 담긴 시간과 정성, 장인의 손길을 생생하게 전달할 전망이다.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나는야 꼬마작가’에서는 아이들이 클레이를 활용해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고 이를 실제 전시 공간에 함께 전시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창작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선사한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전남 공예페스타는 단순히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만들고 체험하며 그 가치와 의미를 함께 나누는 축제”라며 “많은 시민과 관람객들이 나주를 찾아 공예가 선사하는 따뜻한 감동과 즐거움을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전통주 문화 꽃피우는 ‘영암 소믈리에’ 탄생

자격취득과정 마무리...전문인력 12명 배출

바쁜 농번기의 고단함 속에서도 밤낮으로 전을 기울이며 전통주의 깊은 맛을 탐구해 온 이들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영암 땅에서 자란 농산물로 우리 술의 새 지평을 열어가길 12명의 정예 ‘전통주 소믈리에’가 주인공이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석 달간 매주 한 차례씩 모여 영암 쌀을 비롯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술을 빚고, 그 맛과 향을 감별하는 전문 역량을 키워왔다.

고된 농사일과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녹록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전 과정을 완주하고 자격시험까지 당당히 통과했다.

이번에 배출된 전문 인력들은 단순히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영암 농촌 융복합 산업(6차 산업)을 현장에서 이끌 핵심 주역으로 활동하게 된다.

영암의 우수한 농산물을 감각적인 전통

주 콘텐츠로 재해석해, 농가 소득을 올리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령사 역할을 맡은 것이다.

현장 교육을 총괄한 이정영영암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한 명 한 명의 수료생들에게 축하를 건네며, 이들이 현장에서 펼칠 활약에 두터운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소장은 “땀 흘려 얻은 소믈리에 자격인 만큼, 우리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영암의 술 문화를 꽃피우는 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새로운 전문가 집단을 확보한 영암군은 이들의 역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무대를 넓혀갈 방침이다.

지역 축제 현장에서 소믈리에들이 직접 운영하는 시음·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한편, 영암 농산물 기반의 전통주 홍보 마케팅 등 다각적인 사업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암=서승용 기자 biz@gjdream.com

해남, 농촌지도 시범사업 군민 제안 공모

농업현장 중심 기술·아이디어 공모...내년 추진

해남군은 7월 10일까지 2026년 농촌지도 시범사업의 군민 제안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중심의 실용기술과 소득증대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된다.

농업인뿐만 아니라 작목별 생산자 단체, 법인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대상은 신규 농업기술 도입·현장

실증사업, 지역특화 소득작목 육성사업, 기후변화 대응 기술 보급, 노동력·생산비 절감 기술, 기타 해남군 농업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 등으로 지역 농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면 분야에 제한 없이 제안 가능하다.

접수된 제안은 내부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사업을 선정하고,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순천, 미식 로컬 브랜딩 가능성 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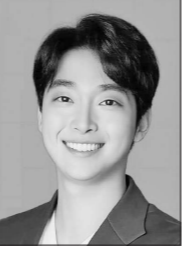
23일 박용준 삼진어묵 대표 강연...성공사례 공유

순천이 지역 식재료를 기반으로 한 미식 콘텐츠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다.

17일 순천시에 따르면 2026 순천미식주간 프로그램 하나로 오는 23일 오후 3시 순천대학교 파루홀에서 삼진어묵 박용준 대표(사진)를 초청해 미식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외식업 관계자와 예비 창업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의 자원과 콘텐츠를 활용한 외식 사업화 전략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초청 강사인 박용준 대표의 삼진어묵은 1953년부터 3대째 이어온 대한민국 대표 어묵 브랜드다. 오랜 전통에 신선한 상품 개발과 유통 방식, 감각적인 브랜드 전략을 더해 어묵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꾼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국내 최초로 ‘어묵 베이커리’ 사업을 도입, 일상적인 먹거리로 창의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면 강력한 미식 콘텐츠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해냈다.



박대표는 삼진어묵의 생생한 브랜드 스토리와 성장 과정은 물론, 메뉴 개발부터 랜딩, 마케팅까지 현장에서 온몸으로 부딪치며 쌓아온 실천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할 예정이다. 이번 특강을 통해 순천의 풍성한 식재료와 로컬 콘텐츠가 도시의 고유한 이야기, 사람들의 기억을 담은 킬러 미식 콘텐츠로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순천시는 기대하고 있다.

특강은 미식과 로컬 브랜딩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홍보 카드뉴스에 포함된 QR코드를 통해 사전에 신청하면 되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당일 특강 종료 후에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와 함께, 입을 즐겁게 할 따끈한 어묵 나눔 행사도 진행된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광양대전환위원회, 민선 9기 시정 아이디어 공모

광양대전환위원회(광양시장직 인수위원회)는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민선 9기 시정혁신 아이디어 및 비전 슬로건’을 공모한다. 오는 21일까지 시정 혁신 아이디어와 비전 슬로건을 접수. 시민과 함께 새로운 광양의 미래를 설계하고 민선 9기 시정 운영의 방향성과 비전을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속에서 찾는다.

시정 혁신 아이디어는 경제구조 대전

환, 산업구조 대전환, 행정구조 대전환, 생활 인프라 대전환, 인공지능(AI) 첨단 도시 대전환 등 시정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네이버 폼(https://naver.me/GuCaXKTh) 또는 시정 운영의 방향성과 비전을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속에서 찾는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영암군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운영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통해 12명의 정예 ‘전통주 소믈리에’를 배출했다. 사진제공=영암군청